논어 6편 옹야 8장 · 원문·풀이

伯牛有疾，子問之，自牖執其手，曰：「亡之，命矣夫！斯人也，而有斯疾也！斯人也，而有斯疾也！」

독음 · 백우유질 자문지 자유집기수 왈 망지 명의부 사인야 이유사질야 사인야 이유사질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병든 백우의 손을 잡은 공자는 좋은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린 것을 거듭 슬퍼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伯 맏 백 백 / 牛 소 우 우 / 有 있을 유 / 疾 병 질 질

子 아들 자 / 問 물을 문 문 / 之 갈 지 / 自 스스로 자

牖 엇살창 유 유 / 執 잡을 집 집 / 其 그 기 / 手 손 수 수

曰 가로 왈 / 亡 망할 망 망 / 命 목숨 명 명 / 矣 어조사 의

夫 지아비 부 부 / 斯 이 사 사 / 人 사람 인 / 也 어조사 야

而 말이을 이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